

12. 조선후기의 회화(1)

1. 절파회풍이 쇠퇴하고 남종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함
2. 우리 나라에 실재하는 산천(山川)을 독특한 화풍으로 표현하는 진경산수(眞景山水)가 대두함
3. 풍속화가 풍미함
4. 서양화법이 전래되어 부분적으로 수용됨.

1. 남종화의 확산

1. 남종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2. 조선후기 대표적인 남종화가: 윤두서 정선, 최북, 이인상, 강세황, 심사정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1. 남종화의 개념:

-동양화의 양대 분파 가운데 하나로 북종화에 대비되는 화파.

-명말(明末)의 동기창(董其昌, 1555-1636)과 그의 친구 막시룡(莫是龍, ?-1587)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화설(畫說)」이라는 짧은 글 속에 정리된 중국 산수화의 남·북종 양파(兩派)의 구분이다.

-당대(唐代) 선불교(禪佛敎)의 남·북 분파(分派)가 생긴 것처럼 중국 산수화에서도 당대(唐代)를 기점으로 하여 분파(分派)하였다고 보았다.

-화가의 신분, 회화의 이념적, 양식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같은 구분을 시도하였다.

-남종선불교(南宗禪佛敎)-돈오(頓悟)-문인 사대부화(화가의 영감과 인간의 내적 진리의 추구를 중시함)-남종화

-북종선불교(北宗禪佛敎)-점수(漸修)-화공의 그림(기법의 단계적 연마를 중시함)-북종화

-인격이 높고 학문이 깊은 문인들이 여기(餘技)로 수묵과 옅은 채색을 써서 내면의 세계의 표출에 치중하여 그린 품격 높은 그림을 일컫는다.

-구도, 준법(皴法), 필법(筆法), 수지법(樹枝法) 등에서 정형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화풍이 남종(南宗)을 숭상하고 북종(北宗)을 업신여기는 동기창의 상남편북론(尙南貶北論)에 힘입어 명말(明末)부터 문인화가들 뿐 아니라 직업화가들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 남종화 화가 계보

→당(唐) 왕유(王維)

→오대(五代) 동원(董源)·거연(巨然)·형호(荆浩)·관동(關仝)

→송(宋) 미불·미우인(未友仁) 부자

→원(元) 황공망(黃公望)·오진(吳鎮)·예찬(倪瓚)·왕몽(王蒙)

→명(明) 심주·문징명·동기창

● 남종화의 기법

-피마준(披麻皴):마의 울을 풀어서 늘어놓은 듯 실 같은 모습의 준

-우점준(雨點皴):아주 작은 타원형으로 찍혀진 붓 자국이 빗방울 같이 생긴 준

-미점준(米點皴):붓을 옆으로 뉘어서 횡으로 찍는 점묘법이나 준법

-절대준(折帶皴): 직각으로 꺾인 띠 모양의 준. 처음에 붓을 약간 뉘어 수평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꺾어 붓털의 옆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획을 그어내린다.

-태점(苔點): 이끼 점. 산이나 바위, 땅 또는 나무 줄기에 난 이끼를 표현한 작은 점

2. 조선후기의 남종화가

● 윤두서(尹斗緒, 1668-1715)

-숙종조의 대표적 선비화가. 전환기에 새로운 회화관과 새로운 화법에 입각한 새로운 경향의 그림을 제시한 선구자.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윤선도(1587-1671)의 증손. 정약용의 외할아버지. 남인의 후예로서 정치적 출세의 좌절을 겪음.

- 성리학은 물론 천문, 지리, 수학, 의학, 병법, 음악, 회화, 서예, 지도, 공장(工匠) 등 다방면에 걸친 박학을 추구했던 학자.

-“윤두서는 인물과 동물, 식물을 그릴 적이면 반드시 하루종일 뚫어져라 관찰해서 그 참모습을 그대로 얻은 후에야 마쳤다.”(이공익, 『연려실기술』)

<자화상>: 전신사조(傳神寫照,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인물을 그대로 베꼈다)

● 尹德熙(1685-?)

윤두서의 아들. 호는 駱西, 蓮翁, 蓮圃.

● 尹愨(1708-?)

자는 君悅, 호는 靑臯, 黃軒.

● 정선(鄭澈, 1676-1759)

-자는 원백(元伯), 호는 겸재(謙齋), 본관은 광주(光州).

-1716년(41세)에 관직에 나아가기 시작하여 40년간 하양현감·청하현감·양천현령 등 벼슬.

-80세에 첨지중추부사(종3품)의 당상, 81세에 동지중추부사(종2품)에 제수됨. 1772년 한성판윤의 정경에 추증됨.

-김창집(金昌集)·김창흡(金昌翕)·김창업(金昌業) 등 소위 '장동(壯洞) 김문(金門) 육창(六昌)'과 교류.

-『주역』과 『중용』 같은 경학에도 밝았고, 『도설경해(圖說經解)』라는 저서를 수십 권 지었다고 전함.

-《신묘년풍악도첩(辛卯年楓嶽圖帖)》(1711년, 36세)

-<인곡유거도>

-<육상묘도>, 60대 중반

1725년 영조가 친모 숙빈 최씨를 모시기 위해 건립 임금의 모친 중 정궁 출신이 아닌 私親 일곱 분을 모신 사당. 육상묘 중건에 대한 기록화. 상단에 도감 좌목에 좌의정 조문명, 호조판서 김동필, 이조참판 신방 등 18인의 명단

● 심사정(沈師正, 1707-1769)

-자는 임숙(臨叔), 호는 현재(玄齋). 본관은 청송(靑松).

-증조부 심지원(沈之源)은 인조반정 일등공신. 조부 향렬의 심익현은 효종의 셋째 딸 숙명공부와 혼인, 영의정 지냄. 그러나 조부 심익창이 1699년 과거부정으로 10년 이상 유배되었고, 이후 왕세제 연잉군(뒤에 영조) 시해 사건에 가담하여 사사됨(1725년).

- 어렸을 적에 정선(鄭善)에게서 배웠다고 함.
- 1748년, 42세, 영정모사도감 감동으로 선발 되었다가 파출
- 강세황, 김광국, 김광수, 이광사 등과 교류

● 이인상(李麟祥, 1710-1760)

- 자는 원령(元靈), 호는 능호관(凌壺觀), 보산자(寶山子) 등
- 중조부가 이경여의 서출인 관계로 말단 관직을 전진하였고, 경상도 사근역의 찰방, 경기도 음죽의 현감 역임.
- *여백의 과장/ 먹을 아끼는 화풍

● 강세황(姜世晃, 1713-1791)

- 자는 光之, 호는 豹菴, 忝齋. 시호는 憲靖. 관은 한성부판윤, 참판.
- 정조 8년(1784)에 진하사은부사로 연경에 파견.
- 71세에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가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의 영예를 안음.
- 1763년(51세)에 절필: 둘째 아들 강훈(姜恂)이 과거 합격하여 영조 알현.
- 교유: 처남 유경종을 중심으로 한 안산학과
- 평론가; 서화에 대한 확고한 이론과 더불어 감식, 감상안 가짐.
- 수많은 서화평 남김으로서 당대 최고의 평론가로서 독보적 존재.
- 화가: 화보류 통해 독학.
- 꾸준한 탐구와 수련 통해 한국적 남종화로 불리는 독자적 화풍 이룸.
- <방십석전벽오청서도>:짜임새 있는 구도, 활달하면서 단아한 필묵법, 먹과 조화 이룬 담채의 사용 등이 어우러져 격조 높은 작품 이룸.

《표옹선생서화첩》 1787-1789년 : 방십죽재화보, 방고산수화첩, 방당시화보 등 최소한 5개 그룹의 그림을 함께 성첩한 서화첩

【참고자료】

-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 변영섭, 『표암 강세황 회화 연구』, 일지사, 1988
- 최완수 외, 『진경시대: 우리 문화의 황금기』, 돌베개, 1998
-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 이예성, 『현재 심사정 연구』, 일지사, 2000
- 유홍준, 『화인열전』, 역사비평사, 2001이내옥, 『공재 윤두서』, 시공사, 2003
- 최완수, 『겸재 정선』, 현암사, 2009
- 홍선표, 『(한국의) 전통 회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박은순, 『공재 윤두서: 조선 후기 선비그림의 선구자』, 돌베개, 2010
-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